

# 재취업여성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신수정<sup>1</sup>, 이인희<sup>2\*</sup>

<sup>1</sup>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sup>2</sup>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Support,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for the Reemployment Women

Su-Jeong Shin<sup>1</sup>, In-Hee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Beauty Arts, Graduate School, Seokyeo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Beauty therapy&Make up, College of Beauty Arts

**요약** 본 연구는 재취업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지지 척도와 진로역량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적응성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는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직업전문학교, 미용학원, 여성 센터에서 미용교육을 1-9개월 이상 받고 있는 30-50대, 기혼,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2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데이터 분석은 SPSS프로그램과 AMOS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Cronbach's  $\alpha$ ,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 진로역량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적응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진로역량과 함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실제 직업진로 상담이나 직무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for the career interrupted women. For this purposes the scales of social support,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rom Mar. 2, 2018 to Apr. 6, 2018 to 960 to the career interrupted women who had the experience of getting training at the vocational school, beauty school and women's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composed of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50s who were receiving the education of beauty care for more than 1-9 months). 920 questionnaires got responded from the women and they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ith Cronbach's  $\alph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performed with SPSS program and the structural equation performed with AMOS program.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tructural model between career capabil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are proper. Second, the path coefficient of the structural model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espect to all of career capabil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Third, it was found that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capability, social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the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has the mediating effect. These results show that if the level of career adaptability is to be enhanced for the career interrupted women, the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can make the critical role in addition to the career capability and social support. So, this study tries to offer the basic data required for the preparation of career and the development of future career for the success of career interrupted women going back to the workplace.

**Keywords** : Career Adaptability,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eemployment Women,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In Hee Lee(Seokyeong Univ.)

Tel: +82-10-2325-2208 email: neroli65@naver.com

Received June 18, 2018

Revised July 11, 2018

Accepted August 3,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 출산, 경제침체의 문제가 연계되면서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 최근 들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다[1]. 우리나라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하다[2]. 이는 과거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과 경제 활성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사와 같은 형태로 경력을 단절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3].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인력의 활발한 활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4]. 여성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회로 재진입하게 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및 자격증 연계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데[5], 한국고용정보원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개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피부관리사, 헤어디자이너 등의 직종이 경력단절여성의 유망도진 직종으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6]. 미용은 개인역량에 따라 기술 습득이 용이하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사회로의 재진입을 위한 우수한 직업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7] 미용교육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 장벽이 그렇지 않은 경력단절여성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직업훈련기관에서 미용과정이 개설된 것은 미용분야가 전문 직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9] 미용산업은 해마다 큰 부가가치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고 있고 아름다움과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매력적인 서비스 산업이다[10].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은 미래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혹은 태도인 진로적응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적응성은 이미 개인적, 환경적 변화 적응에 실패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남성이나

대학생에 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11].

진로적응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먼저 사회적지지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인식하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2][13]의 연구를 통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기초직업능력으로서의 진로역량은 [14][15][16]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진로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진로를 선택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주로 다루어졌는데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17]의 연구에서 보면 진로 선택과 탐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일과 직무조건의 변화 속에서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과 진로적응성 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예비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18]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은 두 변인 및 모든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지지, 진로역량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용교육을 받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진로 환경에 용이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이후에도 이들이 직무에 적응하고 또 다시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실제 직업진로상담이나 직무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역량과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경력단절

경력단절이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의미보다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참여를 지속 할 수 없어 경제활동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다[19]. 이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말하며 경력단절의 외부환경요인은 가사와 양육 등을 의미한다[20].

### 2.2 사회적지지

[21]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되며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또한,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이라고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정의 하였으며 사회적지지가 위기시에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22] 것으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2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통칭하며,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인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다차원의 긍정적인 자원이라 보고[24]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인을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분하여[25] 연구를 진행하였다.

### 2.3 진로역량

진로역량은 진로개발에 필요한 능력[26]으로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에 접근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가치와 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27].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의 목표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개인이 어떠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격, 노하우, 지식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주관적 능력이라 보고[28] 진로역량의 구성요인을 진로역량 측정을 위해 지식, 태도, 기술, 능력 등으로 구분[29]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2.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0]는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 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선택에 적용시킨 것으로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개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31]. 진로발달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32].

본 연구는 진로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고[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을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 직업정보, 미래계획으로 구분하여[34] 연구를 진행하였다.

### 2.5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생물학적 발달에 따른 성숙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인진로발달을 이해하려는 용어[35]로 직업세계의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한 준비성과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으로 정의 된다[36]. 진로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성인이 경험하는 필연적 진로전환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내적성숙의 측면에서의 진로성숙보다 환경적인 변화와 맥락에 대한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진로유연성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37]. 이는 진로적응성은 자기 조절의 역할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과정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진로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보고[38]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인을 책임감, 대인관계, 긍정적 태도로 구분[39]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에 협조할 것을 수락한 서울·경기 지역의 직업전문학교, 미용학원, 여성센터 등에서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미용교육을 1-9개월 이상 받고 있는 30-50대,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960부를 배포하고, 그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40부를 제외한 총 920부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 3.1.1 지역의 선정

경력단절여성의 인구 구조 분포가 전국 1,812천명인데 그 중 서울은 351천명, 경기지역은 515천명으로[40]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잘 대표할 것이라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 3.1.2 대상자의 선정

[41]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연구에서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비교적 재취업이 용이하고 연령이 60대 이후로 일반적인 경력단절여성 연령에서 벗어나 있는 노년기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30대-50대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920)

	Division	N	%
Age	30-34	244	26.5
	35-39	101	11.0
	40-44	427	46.4
	More than 45	148	16.1
Marital status	Be married to	805	87.5
	etc.	115	12.5
Career interrupted period	1 to 2 years	364	39.6
	3 to 4 years	132	14.3
	5 to 6 years	43	4.7
	7 to 8 years	162	17.6
	More than 9 years	219	23.8
major field	Hair	316	34.3
	Skin care	375	40.8
	Nail	197	21.4
	Make up	8	.9
	etc.	24	2.6
training period	1 to 3 months	285	31.0
	3 to 6 months	229	24.9
	6 to 9 months	170	18.5
	More than 9 months	236	25.7
Total		920	100.0

#### 3.2 측정 도구

##### 3.2.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를 측정을 위해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으로 총 19문항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4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Table 2.과 같다.

Table 2. Social Support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N	Cronbach's $\alpha$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4	.717
	Emotional Support	6	.827
	Tangible Support	4	.795
	Appraisal Support	5	.829

### 3.2.2 진로역량

본 연구에서는 진로역량 측정을 위해 지식, 태도, 기술, 능력 등으로 총 16문항을 구성하였다. 역량은 [43]에 의해 개발되고 [44][45]에 의해 사용된 설문문항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areer Capabilit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N	Cronbach's $\alpha$
Career Capability	Knowledge	4	.703
	Attitude	4	.903
	skill	4	.930
	Ability	4	.882

### 3.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을 위해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 직업정보, 미래계획 등 총 17 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46]가 개발한 COMSES-SF(carri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을 기본으로 한 [47][48]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N	Cronbach's $\alpha$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 evaluation	3	.856
	setting goals	4	.874
	problem solving methods	4	.838
	collecting job information	3	.849
	future plan	3	.762

### 3.2.4 진로적응성

본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을 측정을 위해 책임감, 대인관계, 긍정적 태도 등 총 16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로적응성은 [49]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를 기본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areer Adaptability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Variables		N	Cronbach's $\alpha$
Career Adaptability	Responsibility	4	.874
	Relationship	4	.910
	Open mind	4	.883
	Positive attitude	4	.912

##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21.0, AMOS 21.0)을 각각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행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의 수준 및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변수간의 잠재변수와 이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검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측정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인인 진로역량,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개별 변인의 측정치들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인들의 절대 값에 대한 왜도와 첨도가 3과 7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모든 변인들의 왜도는 1.187에서 0.062, 첨도는 3.502에서 0.019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왜도는 표준지수를 절대값 3을 넘지 않고 첨도는 표준지수 절대값이 8을 넘지 않으므로 정상분포 자료로 간주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다변량 정상성의 기본 가정을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50].

**Table 6.**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riable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n=920)

Classification		M	SD	skewness	kurtosis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3.67	.554	-.762	.739
	Emotional Support	3.66	.617	-.654	1.028
	Tangible Support	3.48	.710	-.589	.573
	Appraisal Support	3.74	.633	-.153	-.725
	Total	3.64	.516	-.683	.825
Career Capability	Knowledge	3.69	.494	-.697	1.754
	Attitude	3.82	.692	-.991	1.988
	skill	3.72	.803	-1.187	3.502
	Ability	3.63	.680	-.361	1.000
	Total	3.71	.526	-.062	-.475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 evaluation	3.48	.658	-.157	-.647
	setting goals	3.46	.686	-.300	.019
	problem solving methods	3.55	.585	-.344	-.257
	collecting job information	3.61	.648	-.226	.162
	future plan	3.67	.500	-.338	-.192
Career Adaptability	Total	3.55	.450	-.398	-.130
	Responsibility	3.90	.621	-.455	1.062
	Relationship	3.76	.695	-.823	1.655
	Open mind	3.76	.660	-.469	.488
	Positive attitude	3.69	.762	-.382	.331
Total	3.78	.554	-.506	.220	

**4.2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주요 변인이 상관을 이루고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7.** Verification of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Sortation	Social Support	Career competenci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1			
Career Capability	.316***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46***	.331***	1	
Career Adaptability	.362***	.315***	.353***	1

\*p<.05, \*\*p<.01, \*\*\*p<.001

**4.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단위와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연구단위의 적합도 지수 중  $\chi^2=582.103$ , SRMR=0.053, GFI=0.944, AGFI=0.926, NFI=0.919, CFI=0.942, RMSEA=0.050으로 연구단위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척도들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CR과 AVE를 계산한 결과 모든 요인의 CR은 기준치인 .7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AVE도 기준치인 .50 보다 높아 사용된 측정항목들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ta$	B	S.E	t	C.R.	AVE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1.000	.404			.907	.722
	Emotional Support	3.492	.867	.297	11.748***		
	Tangible Support	2.811	.809	.241	11.654***		
	Appraisal Support	2.306	.675	.208	11.086***		
	Total	3.55	.450	-.398	-.130		
Career Capability	Knowledge	1.000	.690			.927	.762
	Attitude	1.263	.782	.063	20.059***		
	skill	1.333	.717	.071	18.753***		
	Ability	1.319	.796	.065	20.292***		
	Total	3.55	.450	-.398	-.130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 evaluation	1.000	.610			.901	.652
	setting goals	1.312	.767	.080	16.372***		
	problem solving methods	1.055	.724	.065	16.343***		
	collecting job information	.944	.584	.068	13.871***		
	future plan	.596	.478	.054	11.031***		
Career Adaptability	Responsibility	1.000	.657			.910	.717
	Relationship	1.341	.786	.071	18.952***		
	Open mind	1.197	.740	.066	18.214***		
	Positive attitude	1.403	.752	.076	18.412***		
	Total	3.78	.554	-.506	.220		

Fit Statistics :  $\chi^2=582.103$ , p=0.000, CMIN/DF=3.307, SRMR=0.053, GFI=0.944, AGFI=0.926, NFI=0.919, CFI=0.942, RMSEA=0.050

\*p<.05, \*\*p<.01, \*\*\*p<.001

### 4.4 구조모형의 분석

#### 4.4.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본 연구의 가설에 의한 전체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지수 중  $\chi^2=748.660$  나타났고, GFI, NFI, CFI, TLI는 .90 이상인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GFI=.927, NFI=.900, CFI=.919, RMSEA=.059, TLI=.904로 나타났다. RMSEA은 .08 미만인 경우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RMSEA=.059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Table 9. Measurement model of the goodness of fit

$\chi^2$	df	p	GFI	NFI	CFI	TLI	RMSEA
748.660	176	.000	.927	.900	.919	.904	.059

#### 4.4.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치

구조모형의 각 이론 변인의 모수추 정치를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먼저 사회적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의 경로계수는 0.245, C.R값이 5.80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역량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역량의 경로계수는 .105, C.R값이 2.603(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의 경로계수는 0.260, C.R 값이 6.03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역량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역량의 경로계수는 0.204, C.R값이 4.600(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는 0.174, C.R값이 3.77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Structure model

Table 10.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beta$	S.E	C.R.
Social Support	→ Career Adaptability	.261	.245	.045	5.809***
Career Capability	→ Career Adaptability	.214	.105	.082	2.603**
Career Capability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406	.204	.088	4.600***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270	.260	.045	6.037***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 Career Adaptability	.179	.174	.048	3.775***

\*\* p<.01, \*\*\* p<.001

#### 4.4.3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구조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되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45(p<.001)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5(p<.01), 직·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는 .290(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역량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05(p<.01)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6(p<.01), 직·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는 .141(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74(p<.01)로 나타났

Table 11. Effect of Full, Direct, Indirec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Ful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ocial Support	→ Career Adaptability	.290***	.245***	.045**
Career Capability	→ Career Adaptability	.141***	.105**	.036**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260***	.260***	-
Career competencies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204***	.204***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 Career Adaptability	.174***	.174***	-

\*\*p<.01, \*\*\*p<.001

### 5. 결론

본 연구는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변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직업전문학교, 미용학원, 여성 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응답이 불성실한 40부를 제외하고 총 920개의 표본을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데이터 분석은 빈도분석, Cronbach's alpha, 탐색적 요인 분석, 상관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문제를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검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51]. 즉,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역량,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진로적응성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로 적합한 것이다.

둘째, 경력단절의 진로 역량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진로 역량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로 역량이 높으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적응성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대학생의 핵심역량, 대학생활적응,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52]. 또한 진로역량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충분한 진로역량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없다면 높은 진로적응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적응성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53]. 즉,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충분한 사회적지지가 있다하더라도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높은 진로적응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54].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역량은 물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사회적지지 체계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이 더욱 폭넓게 개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



에서 진로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C. Park, "A Study on the Analysis of Employment Needs of Job Discontinued Women and Support Measures in Gyeonggi-Do Province", *GRI Review*, Vol.12, No.2, pp.230-231, 2010.
- [2] N. J. Kim, "Analysis on Career-interrupted Women's Reentry to Labor Market and Maintaining the Reemployment", *Journal of Korea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Vol.26, No.2, p. 2, 2016.
- [3] H. S. Ryu, I. B. Jang, Y. B. Yeom, "The Survey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eemployment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13, No.1, p. 52, 2016.
- [4] M. S. Koo, "Firms' Recognition on Women Human Resources and the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18, p. 24, 2007.
- [5] P. J. Yoo, S. K. Kim, M. S. Baek, "Training Needs Analysis of HRD Practitioners for Women: case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for Women", *The Journal of Asian Women*, Vol.47, No.1, p. 105, 2008.
- [7] S. J. Kim, "Analysis on correlation between beauty treatment education and the employment barrier of Reemployment Women", *Journal Beauty Art Management*, Vol.9, No.1, p. 671, 2015.
- [8] M. C. Kim, "Analysis of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the jobless mature · middle aged and their behavior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p. 31. 2010.
- [9] H. W. Kim, "The Research Study on Adult Women's Satisfaction with the Beauty Art Education Course and Its Impro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p. 1, 2009
- [10] S. Y. Kim, Y. H. Im, M. O. Choi, "30-40 women's The Concern in Beauty and the Preference of the Beauty in the Secondary Career Cho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18, No.2, p. 463, 2012.
- [11] K. Y. Jang,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p.57-59, 2009.
- [12] G. S. Sh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Adaptability in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p.26-28, 2012.
- [13] M. C. Ka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areer Adaptability in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pp.36-37, 2014.
- [14] E. H. Cho, "Effects of Pre-employment Activities and Task Approach Skill on Career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pp.39-40, 2011.
- [15] S. M. Park,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as An Element of Vocational Ability", Vol.30, No.3,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pp.327-351, 2011.
- [16] S. Y. Lee, T. E. Shim, "The Mediating Effect of Non-subject Activities on the Career Adapt-Abilities of Self-Management Competence for Older Youth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1, No.1, pp.67-90, 2016.  
DOI: <https://dx.doi.org/10.13049/kfwa.2016.21.1.6>
- [17] S. Y. Cho, J. Y. Hong, "The Relationship among Demographical Varianc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of Adult Learne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3, pp.1099-1115, 2010.  
DOI: <https://dx.doi.org/10.15703/kjc.11.3.201009.1099>
- [18] J. H. You,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of Emerging Adults : From Preparatory Graduation to First Employ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p.38-39, 2014.
- [19] E. J. Oh, S. J. Park, H. Y. Jang,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areer-Interrupted Women: Focus on Preventing Career Interrup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p. 58, 2016
- [20]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pp.300-314, 1976.  
DOI: <https://dx.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21] N. E. Betz,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Vol.17, No.1, pp.136-144. 1989.  
DOI: <https://dx.doi.org/10.1177/0011000089171008>
- [22] J. E. Park, J. A. Lee, J. Y. Lee, I. J. Chung,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verty",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Adolescent*, Vol.13, No.3, pp. 93-116 , 2011.
- [23] Y. K. Cha, "Influence Factors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for Married Women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Household-Policy", Unpublished

-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 3. 2014
- [24] S. H. Jang, S. U. Jin, "A Study of Comparison of Cellular Phone Addiction Level,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Between Christian Teenagers and Non-Christian General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17, pp.179-202, 2009.
- [25] I. J. Choi, B. W. Kim, M. H. Hwang, E. Y. He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dicators of Korean Adolescent's Career and Vocational Develop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2, No.3, pp.27-53, 2011.  
DOI: <https://dx.doi.org/10.15753/aje.2011.12.3.002002>
- [26] B. W. Kim, "An Exploration on a Counselor's Competence in Performing Counseling Pursuing Harmony and Integr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6, pp.2697-2713, 2012.  
DOI: <https://dx.doi.org/10.15703/kjc.13.6.201212.2697>
- [27] S. I. Lee, "Influence of Physical Therapists' Core Job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guHany University, p. 5, 2017.
- [28] L. M. Spencer, S. M. Spencer, "Competency at work :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3.
- [29]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ve-Hall, 1986.
- [30] T. j. Jeong, "The impact of job preparing married woman's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her career indecision level: The mediating effect of carrier decision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 7, 2018.
- [31] S. Y. Cho, M. R. Moon, "The study of adult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45, No.2, pp.121-149, 2007.
- [32] S. J. Ryu, "A Study of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the Types of Career Decision-mak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ing on students majoring in beauty in junior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Vol.15, No.2, pp.233-250, 2014.
- [33] S. M. Ahn, K. h. Kim,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555-565, 2018.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8.19.1.555>
- [34] E. J. Choi, Y. R.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s*, Vol.13, No.3, pp.49-59, 2012.
- [35] D. E. Super, E. G. Knasel,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Vol.9, pp.194-201, 1981.
- [36] M. L. Savickas,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 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5, No.3, pp.247-259, 1997.  
DOI: <https://dx.doi.org/10.1002/j.2161-0045.1997.tb00469.x>
- [37] K. H. Seo, W. J. Kwak, J. H. Shim,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2, No.4, pp.57-88, 2015.
- [38] J. Y. Lee, "The Effects of Parent's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Rol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Mediator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20, No.6, pp.219-241, 2013.
- [39] K. Y. Jang,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p.57-59, 2009.
- [40] Y. h. Shin,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Levels of Re-entry at Labor Market of Career Interrupted Woman by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pp.33-34, 2018.
- [41] K. H. Seo,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 49, 2014.
- [42] D. Douglas, T. Suurmeijer, S. Briancon, T. Moum, B. Krol, A. Bjelle, R. Sandeman, W. ven den Heuvel, "An international study on measuring social suppor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43, No.9, pp.1389-1397, 1996.  
DOI: [https://dx.doi.org/10.1016/0277-9536\(96\)00036-6](https://dx.doi.org/10.1016/0277-9536(96)00036-6)
- [43] L. M. Spencer, S. M. Spencer, "Competency at work :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3.
- [44] B. M. Kim, "Maternal Perceptions of Key Competencies and the Mother's Roles to Enhance the Child's Key Compet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p.16-18, 2015.
- [45] K. J. Choi, "A Study on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moderated by Individual Compet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p.79-96, 2006.
- [46]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7, No.1, pp.47-57, 1996.  
DOI: <https://dx.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 [47] H. J. Lee, "The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 of Women whose career were interrupted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ucation Kwangwoon University, pp.29-30, 2009.
- [48]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p.38-39, 2000.
- [49] K. Y. Jang,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p.57-59, 2009.
- [50] H. Kang, S. H. Han, J. H. Ku, "Analysis of Structure regarding Adult Learners' Learning outcome and Influence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 340-350,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9.340>

- [51] S. Y. Park,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Career Adaptability for College Students in Enginee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p.93-96, 2015.
- [52] M. K. Je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Adjust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pp.24-25, 2010.
- [53] H. J. Hwang, J. Y. Park, "Effects of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 Vol.24, No.1, pp.114-116, 2015.
- [54] K. H. Seo, W. J. Kwak, J. H. Sim,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Vol.5, No.4, pp.1-31, 2015.

---

**신 수 정(Su-Jeong Shin)**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 박사 과정)

<관심분야>

피부, 화장품학, 사회과학, 교육학

---

**이 인 희(In-Hee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피부, 화장품, 보건, 사회과학, 교육학